

今 臣戰船 尙有十二

난중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났을 때 내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든 구절이었다. ‘오히려(尙)’라는 한 단어가 북소리처럼 내 머리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정유년(1597년)은 장군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모함을 당해 투옥되고, 일개 병졸로 강등되는 굴욕을 겪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도 찾아왔다. 그리고 조국의 운명은 벼랑 끝에 내몰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칠천량해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원균. 장군은 그를 대신해 고작 열두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과 일전을 벌여야 했다. 내가 장군이었다면 ‘고작 열두 척’이라고 썼을 것이다. 장군에게는 ‘오히려 열두 척’의 자신감이 있었다. 그 ‘오히려’가 세상을 놀라게 할 명량대첩을 만들었다. 영웅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을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장군을 영웅 중의 영웅, 즉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난중일기는 개인의 일기이자 거대한 전쟁 서사시이다. 서양에 호머의 일리아드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난중일기가 있다. 그런 까닭에 국보 제 76호인 난중일기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전쟁 중에 모든 상황을 지휘관이 영화로 찍듯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한 예는 역사에 일찍이 없었다. 난중일기가 전쟁사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忠)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 간절한 영혼의 부락을 하고 있다. 난중일기는 내 영혼의 등불이자 스승이 되었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내 마음 속에는 忠, 孝, 愛라는 세 글자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

忠은 혈관 속의 피톨처럼 장군의 온 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침마다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군인으로서 끊임없이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감독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거북선의 대포를 시험하고 있었다. 장군은 미래를 꿰뚫어보는 선견지명을 가진 것이다.

1592. 4. 12. 맑음. 식사 후 거북선의 지자(地字)·현자(玄字) 포를 쏘아보

았다. 순찰사 군관 남한이 살펴보고 갔다.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忠)의 근본이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농부는 농부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할 때 나라가 강건해진다. 나는 과연 학생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더욱 노력해야겠다. 공부도 조금 못하더라도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장군이 나에게 진실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孝)는 장군의 존재 이유였다. 난중일기 곳곳에 가족과 자식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애뜻한 마음이 배어있다. 장군의 지극한 효심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점에 도달했다.

1597. 4. 13. ... 조금 있자니 배에서 달려온 종 순화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방을 뛰쳐나가 슬피 뛰며 뒹굴었더니 하늘에 솟아 있는 해조차 캄캄하였다. ... 길에서 바라보니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여 모두 다 적을 수 없다. 뒷날 대강 적으리라.

가장 인간적인 장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저 전쟁을 잘하는 장군으로만 알고 있던 나에게 한 명의 아들로서의 장군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효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었을까? 장군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러나 반성은 새로운 발전의 시작이라고 했다. 난중일기는 잊고 있던 효의 의미를 나에게 깨우쳐 준 각성제였다.

애(愛)는 장군 정신세계의 밑바탕이었다.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절절한 느낌이 일기 구절구절에 가득하다. 늘 백성의 먹을 것과 잠자리를 걱정하고, 자신의 몸보다는 부하 병졸들의 안전을 우선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장군을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따랐다. 명랑대첩도 장군을 따르는 부하들의 믿음과 충성한 사기가 만든 기적과 같은 결과였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뢰와 용기가 비롯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경쟁에 시달린 나머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고 산다. 우정은 성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이다. 사랑을 잃어버린 지식보다는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난중일기(亂中日記). ‘전쟁 중에 쓴 일기’라는 뜻이다. 전쟁이 임진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다. 1953년 휴전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62년 동안 우리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난중일기는 그러한 위급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서이다. 오늘날 장군이 보여준 忠, 孝, 愛가 더욱 간절한 이유이기도 하다.